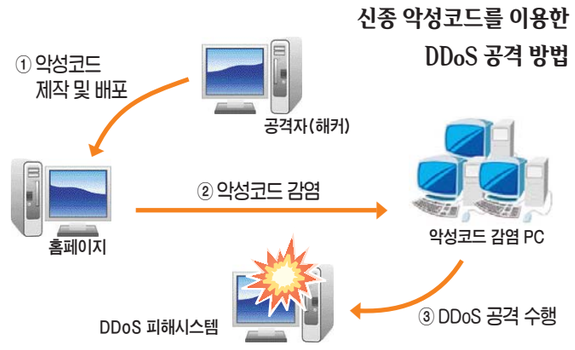
Digital & IT

'사이버 테러'에 내 PC 지키려면

백신 업데이트 수시로 하라

IT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의 '청와대' 홈페이지가 뚫렸다.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국회·한미연합군사령부·한나라당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조선일보·옥션·네이버 등 민간사이트도 하룻밤 사이에 줄줄이 사이버 테러에 당했다.

이런 대규모 해킹 사태를 보는 개인용 컴퓨터(PC·Personal Computer) 사용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사이버 테러의 시대'.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의심스런 첨부 파일 함부로 열지 말 것 … 무분별 다운로드땐 화 자초

◇나도 모르게 조정 당하는 '좀비 PC'=지난 7일 벌어진 대규모 해킹 사태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를 이용한 공격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해커가 인터넷 카페 등의 파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놓아 이 파일에 접촉한 일반 컴퓨터 수만대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컴퓨터를 원격조정하면서 목표한 사이트에 일제히 접속을 유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클릭 한번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조정 당하는 '좀비PC'가 되며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줄줄 새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해킹 사태에 사용된 좀비PC는 2만2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누구의 PC가 사용됐는지는 본인은 물론 관계당국도 파악하기 힘들다.

◇무분별하게 파일 다운 말아야 = 이번과 같은 DDoS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좀비PC로 이용되는 개인용 컴퓨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해킹 방지 프로그램 설치. 해킹 방지 프로그램에는 대개 침입 탐지 솔루션이 설치돼 있어 PC에 이상한 파일이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한다.

하지만 DDoS 공격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마저도 100% 막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의 철저한 예방만이 악성코드를 피할 수 있다.

예방방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파일이나 메일로 들어온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우면 절대 열어보지 말 것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쿠키)은 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브라우저(browser)에서 허용 말아야 하고 ▲p2p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한 후 사용하며 ▲바이러스 백신은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검사하며 개인 방화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관리과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PC를 점검하는 게 최선"이라며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때문에 관련 백신프로그램을 그때마다 다운받아 보안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신발이 편해야 휴가가 편해요" 광주신세계 이마트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 K-swiss 매장에서 바캉스철을 맞아 형형색색의 슬리퍼를 선보여 휴가를 앞둔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안철수硏 DDoS 악성코드 백신 무료 배포

안철수연구소는 청와대 등 25개 기관 및 기업 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 DDoS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전용백신을 무료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격을 유발한 악성코드는 마이둠 변종과, 또 다른 악성코드를 내려받는 다운로더, 공격대상 웹사이트 목록을 담은 파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다수의 에이전트들로, 전용백신은 이 같은 악성코드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악성코드가 설치된 PC는 이른바 '좀비 PC'가 되어 일제히 국내 13개와 해외 22개 사이트를 공격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산업현장 여름 휴가

기아차 공휴일 포함 최장 9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각 기업과 공단에서 여름 휴가 일정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집단 휴가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공휴일을 포함하면 최장 9일간 공장 문을 닫는다.

삼성광주전자도 이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간 공장을 세운다. 4천500여명의 상주 인력 가운데 에어컨 분야를 제외한 전 직원은 이 기간 여름 휴가를 실시한다. 금호타이어도 단체협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

LG이노텍 광주공장은 이달 30일부터 4일까지 1천600여명이, 한국알프스는 700여명의 전 직원이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캐리어에어컨 광주공장도 700여명의 전 직원이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600여명의 전 직원이 8월3일부터 7일까지 여름 휴가로 공장을 떠난다.

반면, 한때 전 직원들이 집단 휴가를 실시했던 엠코코리아는 올해의 경우 이달부터 직원들 의사에 맡겨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나서 삼성광주전자·기아차·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체력 보강에 필요한 영양식 제공 계획을 마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네이버서 CJ 최신 영화 본다

NHN과 CJ엔터테인먼트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네이버에 CJ엔터테인먼트의 영화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빠르면 오는 9월께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J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판권을 보유한 국산 영화와 부가시장 판권을 대행하는 해외 영화를 네이버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최신영화는 3천500원, 신작은 1천800원, 구작은 1천원이다. 최신작은 극장 종영 후 1개월에서 DVD 출시 이후 1개월까지의 영화, 신작은 DVD 출시 이후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화, 구작은 DVD 출시 이후 24개월 이상 영화이다. /연합뉴스

中企 10~15% 구조조정

800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1차 옥석 가리기에서 10~15%가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오는 13일에 끝낼 예정이다. /연합뉴스